

# “대국민 사기” vs “역사적 성과”... ‘체코 원전’ 공방

야당

여당

## 2024 국감 현장

### 국회 산자위, 나누서 한국전력 국감 정진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은폐” 이종배 “근거없는 일방·악의적 주장” 국감장 앞 전력노동자 인권 집회도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체코 원전 수수 관련 공방이 오갔다.

14일 오전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수원에서 의도적으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나 지재권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감추는 것이 많나. 윤석열 정권의 체코 원전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조차 강제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이 뭐냐”, “국감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철규 위원장에게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공기업 감사서 윤석열 정권 운운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일부 야당의원이나 언론이 근거없는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코 원전은 역사적인 성과다. 수주를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는 악의적인 공격행위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정진욱 의원은 “이적 행위가 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이 의원은 “견방지게 어디서 손가락질이나”면서 30여초간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이날 국감 대상 기관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다.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선 시위도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는 한전 정문에서 도시지역에서 근무하는 전력 노동자들의 인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200여명의 노조원들은 상복을 입고 ‘섬주민 안전’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섬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적정고용을 요구했다.

바로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원 10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가계약법 위반하는 한수원을 규탄하고 주휴수당을 설계하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벌였다.

한전 중문에서는 송전철탄 건설을 반대하는 함평군민들의 7차 집회가 진행됐다.

‘신안 해상풍력·해남 태양광발전 345kV 송전철탄 반대 함평군민대책위’가 주관한 집회에는 함평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자파를 야기하는 고압 송전철탄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전 정문에서 중문, 후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는 이들 단체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가득 채워졌다.

송민섭 기자 minsu.song@jilbo.com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에너지 공기업 사장 등이 14일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시, ‘5·18 망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퇴 촉구

### “北 개입 발언에 충격·분노” 입장문 “5·18 진실 호도·왜곡... 자격 미달”

광주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의원의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취임 이후 반복되고 있는 5·18망언”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5·18 북한 개입설은 지난 4년간 5·18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서도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대법원도 2023년 1월12일 지만원 관련 판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은 명예훼손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북한 개입 가능성을 서슴치 않는 것은 5·18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병하 기자

## 김 지사 “전남경제 견인 동부권 발전 위해 노력”

### 동부청사서 첫 실국 정책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전남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지역인만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등 동부권 발전을 위해 포괄적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동부청사 개청 1년 1개월만에 첫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청사에 영상시스템이 잘 갖춰져 민원 처리도 원격으로 가능해지는 등 본청과 유기적으로 운영돼 정책회의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동부권, 특히 순천, 여수, 광양은 중소도시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며 “전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도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와 SOC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 남해안 종합개발청의 전남 설립과 여순사건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통과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 문화의 섬 진도 미래비전 선포

2024.10.25. (금) 오후 5시부터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

주최: 진라남도 Jeollanamdo, 진도 Jindo, 주관: 全南日報, 협력: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진도문화도시센터

이리랑 흥복합 공연 2024.10.25.-27.

진도 문화예술축제

밀양 이용만 명인, 김내개줄당기보존회

소리꽃가객단

진도 광송대 명창, 남도잡가보존회

두번재달

정선 김남기 명창, 정선아리랑보존회

오단애

송소희

재수정 교수

마포로르 Laure MAFO

code 코드 아리랑 만개 萬開 아리랑

Arirang performance in full bloom